

IX. 일원가정을 통한 발굴

김도원 위원*

(수위단회 교화상임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1. 일원가정 만들기의 단계별 추진	77
2 맷는 말	79

원불교 교도의 일원화는 가정에서부터 비롯된다.

가정에서 법신불 일원상을 봉안하고, 가족이 다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일원가정이다.

그러나 원불교 교도의 가정을 들여다보면 교당 법회에 출석하는 교도 중에서 절반에 해당되는 교도가 일원가정이 아닌 홀로신앙을 하고 있다. 따라서 가정의 일원화는 원불교 교도로서 교화 의무와 책임감을 가지고 교화사명을 다해야 할 것이다.

1. 일원가정 만들기의 단계별 추진

- 가. 원불교에 입교하여 신앙과 수행의 과정에서 홀로 초발심의 단계를 거쳐 일원상을 봉안하고자 할 때 가족을 참여시킨다.
- 나. 교무님과 가족과의 잣은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다. 원불교 교전을 생활속에서 접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 둔다.
- 라. 원불교 행사에 참석시켜 스스로 발심하게 인도하고, 원불교 성지여행을 함께

* 김도원 위원 : 원기 84~85년까지 수위단회 교화상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양산교당에서 단장을 맡고 있다.

한다.

- 마. 원불교를 신앙하면서 달라진 내 모습을 볼 수 있게 한다.
 - 바. 교당으로 인도할 때는 교도들이 환영해 주는 분위기에 흠뻑 젖어들게 한다.
 - 사. 법회는 경건하고 진지한 가운데 영혼의 안식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 아. 가정에서 원불교를 공부하는 분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
 - 자. 득도식과 일원가정 환영법회를 가지자.
 - 득도식 또는 일원가정 환영법회는 별도로 행사일자를 정한다.(교당사정에 따라)
 - 득도식을 하는 날 가족 모두가 함께 하고 교도전체의 환영분위기가 연출되어야 한다.
- ① 법당 양쪽으로 길러서 중앙통로로 촛불을 밝혀 든 득도자 또는 일원 가족들이 입장한다.
- ② 양쪽의 교도들은 손뼉을 치면서 환영해 준다.
- ③ 득도자 또는 일원가족들은 촛불 점축을 하고 법신불 전에 4배한다.
- ④ 교무님으로부터 입교증 또는 일원가족 증서를 받고 있을 때, 사회자는 약력을 소개 해 준다.
- ⑤ 교무님께서 법명의 소중함과 법명에 대한 부연 법문을 내린다.(간단하게)
- ⑥ 케익이나 시루떡 등으로 법당 중앙 통로에 놓고 교무님의 법문이 끝나면 케익을 자른다. 이때 득도의 노래를 함께 해 준다.
- 득도자 또는 일원가족들의 감회어린 소감을 들을 수 있도록 사회석에서 인사말을 하게 한다.
 - 성가
 - 앞서 의식을 가졌던 교도 한 두 사람의 신앙 감상담 발표를 하게 한다.
 - 준비한 떡과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담소한다.
- 이제 뭔가 달라져야 한다. 교회는 갈 수록 어려워지게 된다. 그것은 시대의 주류며 현실 사회의 분위기가 탈 종교성을 갖게 되고 있다.
- 일원가정을 통해 교도를 만들어 가는 작업이야말로 가장 선행해야 할 첫 단계이다.

2. 맷는 말

일원가정 만들기는 종교의 운명공동체 만들기이다. 따라서 잡자는 교도 깨우기 연원달기(입교시켜 인연맺기), 청소년 키우기를 일원가정의 울타리에서 비롯되어야 할 것이다.

